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4월 4일

1과

본문말씀 요한복음 20:19-29

의율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한복음 20:29)

주 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를 아나요? 이 말은 백번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반경이 좁아진 요즘에는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또는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일을 해야 하기에, 보는 것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말씀 돋보기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상황을 보도합니다.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의 충격적이고 반전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연결고리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을 믿은 경험이 있나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봐요.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의 감정은 어땠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19절)

19절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A.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제자들은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결고리 제자들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며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봐요.

2.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무엇을 명하시나요?(21~22절)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A.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연결고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봐요.

3.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에 도마는 어떻게 반응하나요?(25절)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A.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으며, 믿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연결고리 도마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말씀으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4.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27, 29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A.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에게 자신의 십자가 상처를 직접 만져보라고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이들이 결국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결고리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나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5.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나요? 가정과 학교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고 있나요?

연결고리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세요.

6.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매 순간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적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통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자, 기쁨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기, 하루에 말씀 3장 이상씩 읽고 부활의 주님께 기도하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생명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안식 후 첫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평강을 주시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야 믿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매 순간 부활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이유, 예수님

4월 11일

2과


본문말씀 사도행전 21:37~22:11

의울말씀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사도행전 22:10)

주 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새 학기가 시작했을 때의 '결심'을 기억하나요? 그런데 결심했던 때의 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십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십대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힘만으로 변화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말씀 돋보기**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며 성전으로 달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전 외곽의 계단에 서서 로마 천부장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바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연결고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변화된 삶'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의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나요?(21:39)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A.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천부장의 오해를 교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유대인임을 밝히는데, 이것은 그가 애굽인이 아니며 성전을 더럽힐 사람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마지막 기회를 갖기를 원했는데, 무엇보다도 바울이 원한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할 기회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아요.

2. 유대인 앞에 선 바울은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22:3~5)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4절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A.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신의 과거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감옥에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연결고리 과거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을 바꾼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3.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이 보고 듣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22:6~7)

6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이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A.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은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빛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4. 쇠사슬에 결박당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울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연결고리 변할 것 같지 않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됐나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5.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 모습을 돌아보아요.

A.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를 찾아봅시다.

연결고리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삶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6.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을 적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예수님을 믿은 이후 변화된 삶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하고, 또한 나 스스로도 노력해야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변화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비속어 줄이기, 컨닝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시험보기, 예배에 늦지 않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제 삶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제 삶을 밝혀주시고 변화시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화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울은 이성적이고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열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인생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향한 인생

본문말씀 사도행전 24:1~21

의율말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사도행전 24:15)

주 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4월 18일

3과

마음의 문을 열며

플레이스 방문하기, 성적 올리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늘리기, 다이어트 하기 등의 목표를 세우고 이뤄 냈을 때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력'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목표가 아닌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다.



말씀 돋보기 본문인 24장은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고(3-8절),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며(9절),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호하고(10-21절), 벨릭스가 바울의 감금에 관한 조건을 말하며 재판을 종결하는(22-2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목표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돌아봅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말한 내용은 무엇인가요?(3절)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니이다

A. 첫째로 더둘로는 벨릭스가 태평을 누리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둘째로 더둘로는 벨릭스의 선견 즉, 그가 유대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 법령 개선을 시행함으로써 보여준 사려 깊은 계획과 행정력을 인정합니다.

연결고리 더둘로는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벨릭스의 임무 수행을 찬양하며 바울을 고발할 준비를 마칩니다.

2. 더돌로가 밝힌 바울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무엇인가요?(5~6절)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흠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A. 더돌로는 바울이 위험한 행동을 하여 유대인들에게 전염병과 같이 해롭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돌로는 바울을 '천하에 흠어진 유대인들이 폭동과 반역을 일으키게 하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연결고리 더돌로는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며 바울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3. 총독 앞에서 반대 세력의 고발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나요?(14~15절)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가디라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A. 바울은 더돌로의 고발처럼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며, 고발자들을 맥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죄를 지은 유대인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닌,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며,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으며 기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더돌로의 고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이은 바울의 변호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말을 할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4. 바울이 세상 법정에서 부활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1절)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A. 바울은 세상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보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외치는 것에 대해 훨씬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보다 복음을 외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나요? 학교와 학원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우리가 가져야할 모습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연결고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치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6.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적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해 잘 보여줍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는,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이 아닌 그저 담담하게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외치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코로나 시대라고 위축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명의 친구에게 복음편지 써서 주기, 교회다니다고 친구에게 당당히 밝히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했으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자 성전을 더럽게 한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그를 고발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풀려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렌즈를 장착~!

- 본문말씀** 사도행전 26:19~29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사도행전 26:18)
- 외울말씀**
- 주 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4월 25일
4과

마음의 문을 열며

누군가 한쪽 눈을 가리고 다음과 같이 외친다면, 이것은 무슨 검사일까요? “3, 7, 9, 안 보여요.” 바로 시력 검사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써야 하는데, 이때 안경 렌즈의 도수가 최적으로 맞춰져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꼭 필요한 최적의 렌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렌즈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말씀 돋보기 바울은 드디어 아그립바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비록 자신이 심문을 당하고 있고 변론의 형식을 빌린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복음 전도였고 바울이 유대에서 전한 마지막 복음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22장) 자신의 유대교적 배경을 설명하고, 어떻게 자신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는지 설명합니다.

연결고리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렌즈를 그대로 끼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착용해야 할 렌즈에 대해 알아보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20절)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이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A.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하나님을 전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다.

2.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전하나요?(23절)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A.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은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는 것에 대해 전합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오히려 바울을 조롱했는데, 바울은 이에 대해 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3. 베스도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그립바왕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요?(26~29절)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27절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A.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이 결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연결고리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4. 바울이 아그립바왕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9절)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A.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 포기한 채 아그립바 왕에게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자신의 이전과 같은 모습인 죄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복음의 영광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연결고리 바울은 오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나는 바울처럼 복음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다음의 질문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5.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가정과 학교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봐요.

A.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복음의 영광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나요?

연결고리 복음의 영광을 알아야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 당당해지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다음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6. 바울처럼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적어 보고, 함께 기도해요.

A.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예시 복음에 대해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서 노트에 적어보기, 매주일 설교시간마다 설교노트 정리하기 등.

나의 기도문

오늘 소그룹을 통해 깨달은 점과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작성해 봐요.



예시)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열매를 거두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가슴에는 ‘복음’이 새겨졌고, 그는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포기한 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복

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